

영암군 생활인구 50만명 확보 ‘사활’

생활인구 유치 시행계획 보고회

22개 부서 93개 사업 공유

방문·체류·정주 선순환구조 정착

영암군이 ‘가보고 싶은, 머물고 싶은, 살고 싶은 영암’ 전략으로 생활인구 50만명 목표 달성에 나선다.

영암군은 최근 ‘생활인구 유치 시행계획 보고회’를 갖고 생활인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22개 부서 93개 사업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 발달 등으로 변화된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돼 주민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암군 생활인구는 처음 산정된 지난해 1월 21만6911명을 기록했고, 같은 해 3분기인 7월 26만7564명, 8월 30만5554명, 9월 30만855명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은 연초 21만명 수준이었던 생활인구가 왕인문화축제 개최, 기전랜드 개장 등 다양한 관광 축제·행사를 거치며 30만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암군은 보고된 사업들로 방문·체류·정주로



영암군은 지난 17일 우승희 영광군수와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인구 유치 시행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영암군 제공>

이어지는 생활인구 확대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보고회에서는 공공기관 직원 정책연수 코스인 ‘영암 혁신로드 개발’, 대학생 유치 체험형 콘텐트 ‘리얼캠퍼스 in 영암’, 청년 체험·탐방 미션 투어 ‘영암인사이드’ 등 12개 신규 사책도 보고됐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을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생활인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기별·중장기별 생활인구 확대 목표를 설정해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생활인구 50만 확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영암에서 어울리며 즐기게 하자”라고 강조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쌀 ‘땅끝햇살’ 일본 수출물량 완판

2t 현지 소진... 10t 추가 수출

해남군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한 ‘땅끝햇살’ 물량 2t이 현지에서 전량 완판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남군은 이달 10t이 또다시 선적된 데 이어 향후 10t을 추가로 수출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잘 지고 윤기가 흐르는 밥쌀을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은 결과로 분석된다.

‘땅끝햇살’은 2015년 브랜드 출현하고, 2016년 상표 등록을 완료한 해남군 대표 브랜드 쌀이다. 국산 육성 품종 ‘새창무’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 쌀이다. 밥맛이 우수하고 친환경으로 재배돼 국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다.

해남군은 일본 수출 성과를 계기로 현지 유통업체와 협상 폭도 넓혀 수출 물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품종 개발과 보급을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일본 수출은 해남쌀의 품질과 상품성을 국제 시장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킨 계기”라며 “농가와 협력해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해남 대표 쌀 브랜드 ‘땅끝햇살’.

유지하고 수출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완도군 농·어업 9992명 공익수당 59억 조기 지급

1인당 60만원... 27일까지 신청

완도군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1차 지급 대상자 9992명을 확정하고 1인당 60만원씩 총 59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지난 2월7일까지 신청을 받아 농어업인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공익수당 59억원의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농업·수협·축협·광주은행·산림조합·신협·새마

을금고 등에서 수령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공익수당 수령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금융기관에서 수령하면 된다.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전 통시장, 지역 내 마트, 음식점, 주유소, 병의원, 약국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해 영농 준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어업·농어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채본부장 ejhung@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주민 건강검진 지원

서부사무소 초고령화 사회 대응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진웅)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주민 지원사업으로 ‘국립공원 주민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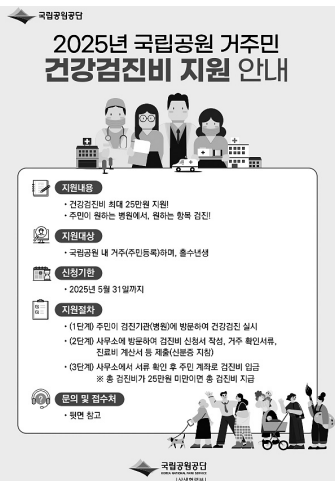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 주민들은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적절한 건강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짝수년생 주민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은 올해는 홀수년생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 해 1인당 최대 25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한다.

검진비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개인별로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병원으로부터 증빙에 필요한 서류(진료비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나 관할분소(흑산도, 도초비금, 진도)를 방문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진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061-280-9534)에 문의하면 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김광균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낙도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원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공약 조례’ 만들어 철저 이행

변경 명문화·공개 의무화 등 담아

영광군이 군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인 추진과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광군 공약 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이하 공약 실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공약사업의 수립부터 이행, 점검,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민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공약 실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약 수립·변경 절차 명문화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구성 ▲공약 이행 현황 공개 의무화 ▲이행 실적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 등이다.

영광군은 민선 8기 장세일 군수 취임 후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을 군정 목표로 ▲

지역경제(8건) ▲주민복지(21건) ▲농산어촌(9건) ▲문화관광(6건) ▲공감 행정(6건) 등 5대 분야 50개 공약을 확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공약 이행을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이 공약 추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군수실에 공약 이행 현황판을 설치해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 전용 누리집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5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을 위한 공약 이행 실천 교육(매니페스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무안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설계 공모

무안군이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들어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한다.

이 사업은 국비 30억원 등 41억원을 들여 연면적 2663㎡ 규모의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새로 단장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6월 9일까지 현장 설명회, 작품심사 등 공모 과정을 거쳐 설계 용역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센터는 스포츠파크 내 기존 시설과 연계해 설계될 예정이며, 탁구장, 스쿼트파크 골프장 등 시니어 맞춤형 여가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을 통해 군민의 체육 활동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확산시키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신안군, 자은도 피아노섬 축제

특별 이벤트 ‘버스킹 페스타’

신안군은 26~27일 자은도에서 열리는 ‘2025 피아노섬 축제’에서 ‘버스킹 페스타’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참가자 중 5명을 선정해 ‘황금피아노’ 반지를 선물한다. 참여방법은 별도로 사전 접수나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축제기간 중 축제장 곳곳에 위치한 버스킹 피아노에 앉아 자유롭게 연주한 영상을 공식 사회관계망(SNS)인 인스타그램 피아노섬 축제에 올리면 된다.

참여 조건은 성별, 국적, 나이 등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피아노를 사랑하고 축제를 즐길 줄만 알면 된다. 5명의 황금피아노 반지의 주인은 온라인 반응, 독창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